

아름답고 건강한 꿈을 가지자!



이사장 이강희

새천년의 희망으로 시작한 21세기의 한해도 끝나고 신사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인항의 숙원이던 다목적 체육관인 「인항관」이 그 커다란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보았고, 크고 작은 행사들을 그곳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옛된 모습으로 모든 인항인들이 이곳에서 힘차게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며 다시 한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으리라 믿습니다.

인항인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서울의 관문이자 지역 경제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인천항에서 일하는 4천여 노동자들이 노동의 피곤함을 씻어줄 한 잔의 막걸리와 한 개비의 담배값을 푼분이 모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부두노동의 힘겨움을 참고 한층한층의 학교 건물을 쌓아 올린 것은 미래를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두에게 꿈은 소중한 것입니다.

꿈은 높은 곳에 이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꿈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욕망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꿈은 멀고 먼 다음 이야기기 아닙니다. 꿈은 지금 내 속에 있는 생각이고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꿈이고 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나의 미래입니다.

1969년 사라호 태풍이 이 땅을 덮쳤을 때, 많은 배들이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진호'라는 여객선 한 척은 아무 피해도 없이 그렇게

강력했다는 사라호 태풍을 거뜰히 이겨냈습니다. 다른 배들은 육지를 향하여 들어오려 했거나 아니면 포구에 닻을 내리고 있다가 파선하였지만 이 배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전속력으로 계속 항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다음 항해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손님들을 모시고 뱃고동을 울리며 항구에 부드럽게 배를 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박한 꿈을 꾸면서 그는 지혜와 용기로 태풍과 당당히 맞섰던 것입니다.

멈추고 물러서서 꿈을 꾸면 파선합니다. 바다에서 움직이면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박하고 건강한 꿈을 꾸면 그 꿈은 100% 이루어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꿈을 가집니다. 기쁨이 생처럼 솟아나고 평화가 강강이 흐르고 믿음과 용서, 사랑과 그리움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꿈을 내 마음에 담읍시다. 내 생활속에 펼쳐봅시다.

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이제 곧 우리 곁에 올 봄에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꿈을 살피봅시다. 후시 아름다웠던 나의 꿈들이 그 동안 이기심과 욕망으로 퇴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꿈들이 물러서 있거나 멈추어 서 있지 않은지 가만히 살펴봅시다.